

‘식물 국회’ 이달에 열려도 ‘척척산중’

추경·사법개혁특위 연장 등 곳곳 ‘지뢰밭’ 여야 주말에 물밑 협상...오늘 분수령 될 듯

여야가 6월 국회의 문을 열기 위해 막바지 줄다리기를 하고 있으나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은 모습이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사과와 법안 처리 문제 등을 두고 견해차가 크지만,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국회 정상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이 주말까지 물밑 협상을 이어가며 접점을 찾고 있어 9일이 국회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회 정상화를 아직 예상할 수 없으나 여야 충돌의 불씨가 남아있어 어렵게 6월 국회를 열더라도 소모적인 논쟁만 거듭하다 결국 ‘빈손 국회’가 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가장 큰 쟁점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방안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 원 규모의 재난 대응·경기 대응 추경안을 원안 그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포항 지진·강원 산불 등 재난 관련 예산 2조2,000억원만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고 맞선다. 나머지 민생경제 지원예산 4조5,000억원은 총선을 앞둔 여당의 선심성 예산이라는 판단에서다.

바른미래당은 정부안의 절반가량인 3조1,000억원의 추경에 동의하겠다는 당론을 세웠다. 이는 국회 발령 없이 조달 가능한 액수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국회 정상화 협상 과정에서 이 부분을 미리 조율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절충

점을 찾아 처리 방안을 합의한 뒤 국회를 열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건건이 대치를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말 종료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 문제도 총동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특위에 입법권을 줬다는 것은 본회의까지

특위가 해결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연장이 필요하다”며 “사법개혁안의 경우 행정안 전부, 법무부 등 여러 부처가 중복돼 있는데 특위가 연장되지 않으면 논의가 분산된다. 선거법 역시 항상 정개특위에서 처리해 왔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특위 연장에 전면 반대한다. 특위를 종료한 뒤 정개특위 안건은 행정안전위원회, 사법특위 안건은 법사위원회로 넘겨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점 처리 법안 순위와 청문회, 상임위원회 개최 등을 둘러싼 전선 형성도 예견되고 있다.

민주당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특별법 개정안,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의 법안 처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서비스경제발전법, 사회적경제 지원법 등 공정경제·혁신경제 관련 법안도 처리를 버리는 중이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법안 상당수에 반대하는 동시에 국민부담경감 3법, 세금부담경감 3법, 건전재정법 등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원내 관계자는 “이미 발의했거나 발의할 법안 중에서도 정부 재정확대와 중세 시도를 막기 위한 것들을 모아 중점처리 법안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북유럽 순방길 오르는 문 대통령 내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9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환송인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6박 8일 일정으로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등 북유럽 3국을 국빈방문 한다. /연합뉴스

정기 브리핑

“광주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후 대화”

천정배, 국방부 장관에게 조속한 이행 요청

민주당 천정배(광주 서을)의원이 “광주 군공항 이전은 예비이전 후보지를 복수로 선정해놓고, 서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국방부 장관에게 조속히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천 의원은 최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난 3년간 광주 군공항은 현재 예비이전 후보지조차 선정 못하고 있으니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상황이다”면서 “그게 없이 세월만 지나면서 오히려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광주 군공항은 30만 주민의 소음피해, 국가배상 재정부담, 개발제한 등 주민재산 피해 뿐만 아니라, 광주-전남의 전체적인 발전, 즉 스마트 시티 건설 등 광주-전남의 미래발전에도 큰 걸림돌



이 되고 있다”며 “새로 이전하는 곳도 피해를 주지는 것이 아니라 상생의 견지에서 거기도 함께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이전 예정지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천 의원은 “전남의 후보가 될만한 지역에서 많이 반대를 하고 계시다. 이해가 된다. 하지만,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과반수 찬성을 하지 않는 이상 군 공항이 옮겨갈 리가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서로 상생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황주홍,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방서장에 수상레저 일시 정치 권한 부여

민주당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의원은 최근 신종 수상레저활동의 인명피해 감소를 위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내수면 수난구조주체인 소방관서의 장에게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험한 수상레저 활동을 일시 정치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내수면에서의 수상레저 활동에 시정명령 권한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다. 하지만 여름철 전국 주요 물놀이장에 배치되는 119구조·구급대 및 119시민수상구조대



에는 사고 예방을 위한 권한이 없어 안전관리 실효성이 저하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수상레저 산업이 발전하고 여름철 활동 인구가 늘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소방관서가 일시정치권 확보를 통해 안전관리 실효성을 높이고, 수상레저 활동 인명피해 최소화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바른미래 내홍 오늘 의원 워크숍 주목

손학규 퇴진·징계 등 현안 놓고 120분 난상토론

4·3 보궐선거 참패 이후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내홍이 10일 국회의원 워크숍을 계기로 갈림길에 설 전망이다.

당내 모든 갈등 현안을 올려놓고 120분 동안 진행될 난상토론 결과에 따라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와 안철수·유승민계 연합 간 계파 갈등의 봉합 여부가 정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양측은 모두 주말 동안 서로 이합집산

하며 혁신위원회 도입 등 워크숍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 중이다.

9일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워크숍은 10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회의장에서 김대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초청 강연으로 시작된다. 약 30분의 강연 뒤 참석자들은 70분간 김 전 장관과 질의응답을 하고 토론을 한다.

오후 4시부터는 2시간 동안 원내·당내 현안에 대한 난상토론이 예정됐다. 손대

표와 오신환 원내대표의 마무리 발언 외에는 정해진 주제와 형식이 없다. 바른미래당계로도 불리는 유승민계의 한 관계자는 “혁신위원회 도입, 윤리위원장 교체, 하태경 의원 징계, 이찬열 의원 막말 논란 등 모든 이슈가 터져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당권파와 안-유 연합이 가장 갈등을 빚는 지점은 당을 수습할 혁신위원장을 누구로 세울지다.

당권파는 주대환 ‘플랫폼 자유와 공화’ 공동의장을 혁신위원장으로 내세우기로 하고 안-유 연합을 설득하는 중이

다. 실제로 손 대표는 7일에도 바른미래당을 직접 접촉했으나 별다른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서 안-유 연합은 ‘정병국 혁신위원장’을 손 대표 측에 압박한다. 주 공동의장은 손 대표와 가까운 인물이라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이 구성하는 혁신위원회는 손 대표의 거취까지 ‘혁신 대상’으로 삼는다. 당권파와 총동이 빚어지는 대목이다.

당권파 내부에서는 주말 동안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10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혁신위원회 설치를 표결하자는 강경 주장도 나온다.

가결되면 오후 워크숍에서 ‘인물 경쟁’을 벌이고, 부결될 경우 혁신위를 아예 접자는 것이다. /연합뉴스

황교안 민생투쟁 시즌2 시동

‘여성·청년’ 키워드 외연확장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여성·청년층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달 24일 마무리한 ‘민생투쟁 대장정’에서 한계를 보인 중도층 외연확장의 열쇠가 여성과 청년층을 공략하는데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이 같은 행보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황 대표는 ‘취임 100일 이브’인 지난 5일에는 국회에 20~40대 청년들을 초청해 토크콘서트를 열었고, 7일에는 여성기업인 및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청년 창

업가와 잇달아 대화에 나섰다.

황 대표는 주말인 8일에도 영등포 당사에서 ‘청년정치캠퍼스Q’ 개강식과 특강을 연 데 이어 30대 청년이 당협위원장을 맡은 송파병 지역에서 당원 교육에 나섰다.

지난 5일 이후 현충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정이 여성과 청년 관련 행사로 채워진 셈이다.

물리적 ‘스킨십’은 물론이고 상대적 취미 지지층인 여성과 청년을 공략하기 위해 부동산, 교육, 일자리 등 분야에서 생활 밀착형 이슈를 개발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연합뉴스

장성 전원주택 토지매매

* 이제 교통이 최고입니다. *

■ 광주에서 15분 장성 IC, 장성호(담) 1분 (국도도로 12m접)

■ 최고의 전원주택 / 산새좋은.공기좋은 300평 - 매가 2억 1천만 (도로앞면 18m) (국도12m접)

- ① 50평 - 매가 4천5백만(주택, 텃밭+주말농장,창고적합)
- ② 100평 - 매가 9천만원(주택, 텃밭+주말농장,창고적합)
- ③ 300평 - 매가 1억2천만(주택, 텃밭+주말농장,창고적합)

기타 추천물건

- ① 장성을 용강리 - 국도도로 접함 (4,545m2) - 1억3천만
- ② 장성을 용강리 - 국도도로 접함 (2,270m2) - 7천만
- ③ 장성을 안평리 - 2차선 도로 접함(523평) - 1억6천

062-382-5500 / 010-6670-9800

상가 매매 [급매]

■ 북구 문흥동 (6층) 아파트 1만세대 위치 (병원,대형학원,한의원,스포츠,기타적합)

■ 6차선 도로접 코너변 위치 ■ 보증금 1억에 월 400만

▶ 감정/시세 → 15억 매 가 → 8억

기타 추천물건

- ① 상무지구 메가박스앞 (7층 중 6층) 80평 ▶ 매가 2억8천
- ② 북구 용봉동 (원룸) 토 80평 건물165평 ▶ 매가 6억8천
- ③ 첨단지구 상가 (10층) 25평 (전망최고) ▶ 매가 9천

062-382-5500 / 010-6670-9800

경매 교육 [기초 특수]

☆ 무료 교육 2회 실시 ☆ (월,수,토)

- ① 초급 실전반 (기초 + 실전)
- ② 중급 실전반 (기초 + 실전 + 특별)
- ③ 고급 특수반
(유치권,지분,법지,개발,절반가격)
- ④ 직업 전문반
(사무실근무,전문컨설팅)

※ 사무실 함께 쓰실분
(책상,컴퓨터 → 제공 / 주1회 물건 분석 스타디)

경매 물건 추천

- | | |
|--|---|
| 1. 북구 문흥동 (상가주택)
토58평,건86평
▶ 감평가 2억7천→
최저가 2억7천 | 3. 북구 일곡동 (4층중 1층상가)
토15,건41평
▶ 감평가 3억7천6백→
최저가 2억6천3백 |
| 2. 북구 중흥동 (상가건물)
토52평,건43평
▶ 감평가 2억9천6백→
최저가 2억7백 | 4. 광산구 우산동 (4층중 2층 상가)
실평수 121평
▶ 감평가 14억1천만→
최저가 4억 |

062-382-5500 / 010-6670-9800